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과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Security Agents

김경식*, 이광렬**, 김평수***, 김찬선****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 사회체육학과*, 국방부**
전남도립대학 경찰행정경호학과***,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Kyong-Sik Kim(kks7@hoseo.edu)*, Kwang-Lyeol Lee(kwangll@paran.com)**
Pyung-Su Kim(kps@namdo.ac.kr)***, Chan-Sun Kim(atom7942@hanmail.net)****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과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시큐리티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시큐리티 요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판단 표집법을 활용하여 총 360명을 표집하였다. 그러나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333명이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삶의 질은 차이가 있으며, 관람감상활동에서 높다. 셋째,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수준은 삶의 질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즉, 여가활동 수준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급여만족을 통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급여만족은 여가활동 수준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시큐리티 요원 | 여가활동 수준 | 여가활동 유형 | 직무만족 | 삶의 질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security agents. To attain the goal of the study described above paragraphs, private guards held in Seoul and Gyeong-Gi were set as a collected group. Then, using judgment sampling method, finally drew out and analyzed 333 peoples in total. The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check up was here below; Chronbach's $\alpha = .665-.816$. The conclusion drawn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make no difference between leisure types in job satisfaction.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leisure type in quality of life. Third, the level of leisure activities results in the indirec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through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is an important variable inter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 keyword : | Security Agents | Leisure Activities | Job Satisfaction | Quality of Life |

1. 서론

시큐리티(private security) 산업은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산업의 일 영역으로서, 민간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적(私的) 경호경비활동을 담당하는 분야이다. 국내의 시큐리티산업은 경비업법에 의해 민간경비라는 용어와 경비업체라는 용어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세부업무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큐리티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2007년 말 현재 약 2,800여 개의 업체에 이르고 있다[14]. 이처럼 시큐리티 산업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문 분야에서는 시큐리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큐리티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요원들의 교육훈련, 진로 및 취업, 이직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큐리티 산업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시큐리티 요원의 복지나 여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가라는 용어는 영어 ‘레저(leisure)’의 우리식 표현이다[6]. 즉 여가란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쓸 수 있는 자유시간에 각종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시민들은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주장된 ‘행복추구권’과 같이 스스로가 자신의 여가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즉 시큐리티 산업의 여가정책은 주체인 시큐리티 요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부기관 및 관련 행정체계, 그리고 시큐리티 업계 및 업계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정책 환경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게 여가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가정책의 기반에서 시큐리티 요원은 여가활동을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업무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큐리티 요원은 여가활동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되고 있다[2]. 그 이유는 1일 3교대 또는 2일 2교대 등을 실시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시큐리티

요원들은 주변의 사회구성원과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과 본인의 직업에 대해 비교하게 되고 비교 요소로서의 여가활동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그들의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만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여가활동은 상당부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여가활동은 시큐리티 요원들이 가지는 직무의 단조로움으로부터 촉발되는 무력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직무만족을 제고시켜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를 성장시키며, 건강증진, 스트레스 해소, 도전정신, 만족감/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6]. 한국에서는 88올림픽 이후 교양오락비가 증가하며 IMF이후 교양오락비는 급감하다가 다시 2000년 이후 교양오락비가 가구소비의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대중여가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여가의 개념은 주관적인 느낌으로서, 활동 및 휴식 등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여유롭고, 편안하고, 즐거운 의미를 가진다. 여가를 가지는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에 36.2%, 스트레스해소 23.3%, 건강 19% 이고 기타 대인관계(8.7%), 일의 능률 향상(4.6%),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4.3%) 자아실현(3.5%)을 가지고 있으며[6],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여가활동을 실시하는 목적은 개인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또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실시하고, 대인관계향상, 스트레스, 자아실현/자기만족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 이와 같이 여가활동은 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시간인 야간 또는 주말에 실시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수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활동이나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 등의 활동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직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거나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일 것이다.

여가활동의 유형을 보면 건강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 목욕, 사우나, 산책 등이 있으며,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TV 시청, 게임 등이 있고, 마음의 안정을 위한 여가활

등 유형은 TV시청, 종교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교제를 위해 계모임, 음주 등의 활동이 있다[6].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 잡담, 통화하기 등의 활동이 있으며, 자기발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가활동에는 신문잡지 구독, 독서, 만화 등의 활동이 있다. 그리고 자아실현·자아만족을 위해 하는 활동은 종교활동, 독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여가활동 유형중 스트레스 해소, 자기발전 및 자기계발 등의 여가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업무수행 발전을 위한 활동일 것이며, 이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 마음의 안정을 위한 활동, 대인관계 등의 여가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여가활동은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큐리티 관련 기관들이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과 직무만족의 관계,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한 후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으로는 직무의 성질, 작업환경, 승진, 급여 등으로 연구된 바 있다[8]. 이를 여가활동과 연계해 볼 때 여가활동을 통해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작업환경이 향상되었으며, 승진, 급여 등이 향상되었다면, 여가활동을 통해 직무만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요소로는 이직, 결근, 직무성과 등의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또 다른 요인으로는 대부분 직무 상의 고용상태, 직무의 성질, 작업 환경, 급여, 승진, 상사 및 동료들과 관련지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요인으로 업무유형, 급여, 승진제도, 동료를 세부 측정요소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삶의 질’이란 주관적인 안녕상태라고 하며, 주요영역으로는 신체, 정신, 사회, 경제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된 바 있다[4]. 즉 ‘삶의 질’이란 주관적인 안녕감, 행복, 만족감 등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서 상태, 자아존중감 등의 요소로서 구성된다고 하였다. 90년대 이후에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었다. 삶의 질은 인간의 가치체계와 결부된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주관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과 연계하여 볼 때 시큐리티 요원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정서상태가 좋아지고 자아존중감 등이 높아지며 개인의 안녕감, 행복감 등이 향상되었다면 시큐리티 요원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시큐리티 요원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시큐리티 요원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시큐리티 요원들에게 여가활동은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이 직무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연구이나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시큐리티원 요원들의 여가 활동의 문제와 삶의 질의 문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큐리티 학계에서는 학문적 정체성 확보에 급급하다보니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과 관련 연구에 관심을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여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시큐리티 요원들의 직무만족이나 삶의 질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고, 시큐리티 요원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화 정책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 및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과 삶의 질의차이를 분석하고, 여가활동 수준이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여가와 이들 세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수도권(서울·경기) 소재 시큐리티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시큐리티 요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환 후 판단표집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08. 8. 1. ~ 9. 15일 까지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업체로서 50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개소 업체에 30명씩 총 360부를 배부하여 333명의 표본을 회수,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과학적 연구방법의 중요한 요소로서 설문지 작성이 미흡하거나 설문내용이 연구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면 원하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1].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형태, 월수입의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가활동 참가 설문지는 [12][13]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서, 여가활동 유형, 참가빈도, 참가기간, 참가강도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은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놀이오락활동, 관광행락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참가빈도는 개방형 척도로서, 주 몇 회로 측정하였다. 참가기간은 몇 년 몇 개월, 그리고 참가강도는 몇 시간 몇 분으로 개방형으로 측정하였다. 직무만족 설문지는 [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서, 동료만족, 승진제도만족, 업무수행만족, 급여만족 등 4개의 하위요인과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2] 참조). 삶의 질은 [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서, 삶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로서,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삶의 질은 삶의 과정에 대한 평가, 생활조건, 삶의 만족, 목표성취, 전반적 삶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표 2]와 같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타당도는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로 이분할 수 있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그리고 구성타

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내용타당도는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명확히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1]. 개발하거나 적용하려는 측정도구가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특정개념이나 속성을 잘 반영'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먼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성	남성	246	73.9%
	여성	87	26.1%
연 령	25세 이하	130	39.0%
	26~30세	153	45.9%
	31~35세	34	10.2%
	36세 이상	16	4.8%
학 력	고졸 이하	137	41.1%
	전문대졸	161	48.3%
근무경력	대졸 이상	35	10.5%
	1년 이하	120	36.0%
	1년 이상~3년 미만	132	39.6%
근무형태	3년 이상	81	24.3%
	시설경비	193	58.0%
	특수경비	99	29.7%
	기 타	41	12.3%
월수입	120만원 이하	84	25.2%
	121~140만원	75	22.5%
	141~160만원	71	21.3%
	161~180만원	74	22.2%
	181만원 이상	29	8.7%
전 체		333	100%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학 박사 1명, 경호안전학 박사 2명과 경호안전학 박사과정 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설문지에 대한 검토 및 논평을 통해 내용타당도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삶의 질은 단일 개념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적재치는 $\alpha=.665\sim.816$ 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7.826%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는 $\alpha=.811$ 로 나타났다.

4. 자료조사 및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위한 조사절차는 먼저 연구를 위하여 업체

의 대표 및 관리자들을 상대로 협조를 득한 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가활동과 시큐리티 요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에 의해 설문내용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다.

표 2. 직무만족 설문지대해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구분	요인1 동료 만족	요인2 승진제도 만족	요인3 업무수행 만족	요인4 급여 만족
1. 직장동료의 이해심 및 지성	.815	.157	.023	.103
2. 상호 도움	.807	.211	.166	.014
3. 동료와 빈번한 대화 및 친밀함	.802	.096	.125	.005
4. 동료에 대한 신뢰 및 존중	.788	.221	.131	.009
5. 동료와의 관계만족	.784	.046	.194	-.108
6. 동료와 직무 관련 상의	.739	.167	.181	-.034
7. 승진제도 공정성	.186	.822	.042	.247
8. 근무평가 공정성	.194	.799	.215	.194
9. 일의 성과 승진반영	.104	.787	.195	.187
10. 승진제도 개선	.301	.736	.220	.098
11. 승진전망	.174	.677	.301	.186
12. 업무의 중요성	.276	.024	.764	-.013
13. 현 업무의 중요성 타인 지각	.014	.150	.670	.126
14. 업무의 흥미	.296	.188	.664	.207
15. 능력과 기술 활용	.167	.264	.651	.031
16. 장래성 및 발전	.081	.432	.594	.191
17. 급여 만족	-.005	.126	.176	.880
18. 일 대비 급여만족	-.010	.239	.039	.810
19. 급여 결정방법 만족	.036	.361	.167	.779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4.144	3.609	2.667	2.324
% of Variance	21.812	18.997	14.037	12.230
Cumulative %	21.812	40.809	54.846	67.076
Cronbach's α	.900	.873	.782	.839

그리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또한 설문 실시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아 설명하도록 하였다. 회수한 설문지중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극단치(out lier)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를 토대로 단순빈도분포와 백분율을 통해 표본의 일반적 성향을 살펴본 후 사회인

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 직무만족,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for WIN 16.0을 활용하였으며,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공변량 분석, 그리고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유형과 직무만족

[표 3]은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표 3.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과 직무만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스포츠활동	68	3.049	.464
취미교양활동	29	3.100	.470
놀이오락활동	59	2.816	.555
관광행락활동	26	2.852	.549
관광감상활동	63	3.042	.576
사교활동	88	3.106	.532
공변수의 F값			
성		.163	
연령		1.762	
학력		.020	
지위		.474	
경력		.070	
수입		3.232	
근무형태		1.033	
시설		1.850	
특수			
주요과의 F값			
여가활동유형		1.950	

[표 3]은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은 사교활동(M=3.106), 취미교양활동(M=3.100), 스포츠활동(M=3.0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변수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주요과인 여가활동 유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의 차이가 없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2.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유형과 삶의 질

[표 4]는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표 4]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은 관람감상활동(M=2.682), 사교활동(M=2.577), 스포츠활동(M=2.5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변수의 경우 학력과 근무형태등 시설경비의 주효과를 보면 여가활동 유형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과 삶의 질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스포츠활동	68	2.570	.556
취미교양활동	29	2.427	.745
놀이오락활동	59	2.305	.574
관광행락활동	26	2.453	.723
관람감상활동	63	2.682	.731
사교활동	88	2.577	.756
공변수의 F값		.450	
성		1.323	
연령		4.029*	
학력		.050	
지위		.580	
경력		1.269	
수입		5.003*	
근무형태		1.817	
시설			
특수			
주요과의 F값			
여가활동유형		2.433*	

3.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수준과 직무만족 및 삶의 질

[표 5]는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수준이 직무만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이다.

[표 5]에 의하면,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수준($\beta = .131$)과 급여만족($\beta = .261$)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삶의 질 전체 변량의 약 10.3%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 수준($\beta = .196, .163$)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업무수행만족과 급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무수행만족의 2.7%,

표 5.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수준이 직무만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독립변수	삶의 질	직무만족			
		동료만족	승진제도만족	업무수행만족	급여만족
여가활동수준	.126*(.131*)	.025	.072	.196**	.163**
동료만족	-.089	—	—	—	—
승진제도만족	.061	—	—	—	—
업무수행만족	.032	—	—	—	—
급여만족	.205*(.261***)	—	—	—	—
R ²	.103	.005	.018	.027	.020

* p<.05, ** p<.01, *** P<.001 ()괄호 안의 수치는 재조정된 회귀계수

급여만족의 2.0%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표 5]의 결과를 토대로 모형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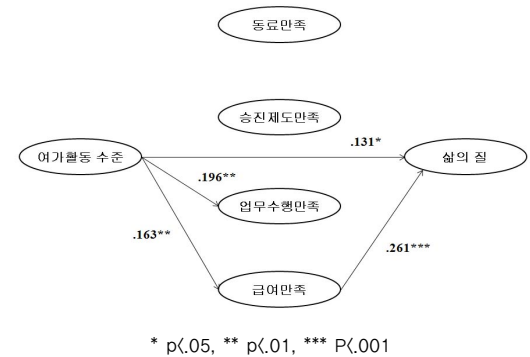


그림 1.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수준이 직무만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형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그동안 시큐리티 연구영역에서는 여가활동과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큐리티 학문분야의 역사가 일천하고, 연구영역이 전문화, 세분화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최근에 시큐리티 학문은 스포츠과학의 하위영역으로서, 사회과학자와 스포츠과학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시큐리티 영역에서

는 시큐리티 요원이 일선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시큐리티 요원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여가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복지적 측면에서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 활동이 과연 직무만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은 시큐리티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향유하는 활동으로서, 업무 외적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여가활동은 개인적인 건강, 즐거움, 마음의 안정 등을 위해 향유되는 활동이며, 그 유형은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놀이오락/관광행락활동, 관람 및 감상활동, 사교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에 집중하는 수준, 즉 시간과 노력, 강도 등은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며, 여가활동이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큐리티 요원들은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직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상이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분석결과는 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시큐리티 요원들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여가활동을 하게 된다. 시큐리티 요원의 업무는 틀에 박힌 단조로운 패턴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직무의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즉 직무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가활동이 직무만족도를 결정지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큐리티 요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요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가활동 가운데 스포츠 활동은 시큐리티 요원이 단조로운 업무에서 탈피하여 기분을 전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일의 집중력이나 직무몰입과 함께 직무만족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인 활동이 된다. 시큐리티 회사에

서는 복지적 차원에서 시큐리티 요원 개인에게 체력 단련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큐리티 요원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은 물론, 직무만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삶의 질은 차이가 있으며, 관람감상활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시큐리티 요원들이 활동적 여가활동보다는 수동적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나 행복감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시큐리티 요원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단순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여기서 상당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과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이 관람감상활동과 같은 수동적 여가활동에 비하여 여가의 만족감이나 삶의 질 향상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9][10].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시큐리티 요원의 업무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여가활동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아가 자기개발이나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큐리티 요원들은 여가시간이 부족하여 참다운 여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큐리티 요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시큐리티 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여가시간을 늘려주고, 이를 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시큐리티 요원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여가활동이란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여가활동이 아니라, 여유로운 상태에서 내적으로 동기화된 목적적, 창조적 여가활동을 의미한다. 여가는 활동 참가자가 내적으로 동기화될 때 그 기능 및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있어서 내적 동기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여가활동 수준과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 수준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급여만족을 통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수준이 증가하면 직무만족이 향상되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가활동수준이 높아질 경우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급여만족과 삶의 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급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느끼고, 이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금의 시대에서는 ‘시간=돈’이라는 공식을 떠올릴 수 있다.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하지만, 시큐리티 요원은 여가활동에 빈번하게 참가하게 되면 급여에 대해서도 ‘시간=돈’이라는 사고를 통해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취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직장이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큐리티 요원들에게 급여만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큐리티 요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적 차원에서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을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경영주에게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비용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큐리티 요원들의 건강, 체력증진, 직무스트레스 해소, 직무만족 향상, 이직을 감소,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수반하여 조직의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큐리티 요원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민간 차안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복지환경을 고려한 일정 수준의 치우와 보수 등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3].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형태가 여가활동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가권태감과 같은 제 3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시큐리티 요원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유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삶의 질은 차이가 있으며, 관람감상활동에서 높다.

셋째,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수준은 삶의 질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즉, 여가활동 수준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급여만족을 통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급여만족은 여가활동 수준과 삶의 질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1] 김경식, 스포츠과학연구방법론, 무지개출판사, 2005.
- [2] 김경식, 김찬선, 이광렬, 김평수,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9호, pp.27-38, 2008.
- [3] 김경식, 김평수, 김찬선, “민간경비원의 여가제약과 생활체육 참가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지, 제7권, 제12호, pp.167-178, 2007.
- [4] 노유자,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학원 박사논문, 1988.
- [5]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 활동 참여율 44.1% 기록”, 보도자료, 2007. 1. 24.
- [6] 문화관광부, 여가백서, 2006.
- [7] 문화관광부, “2007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2007. 2. 22.
- [8] 박영진,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학원박사논문, 2006.
- [9] 윤이중, “직장인의 생활체육 참가와 삶의 질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 [10] 이성철,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 [11] 이종길,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12] 임변장, 이범제, 김동진, 이해주, 정철수, 채관석, 정영린, 김홍설, 권순용, 고은하, 김경식, "국민여가활동 참여 실태 조사", 문화체육부, 1995.

[13] 임변장, 채관석, 우찬명, 김홍설, "한국인의 여가관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33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995.

[14]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4.jsp

저 자 소 개

김 경 식(Kyong-Sik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체육학과(체육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상업스포츠 소비행위, 실버스포츠산업, 여가 및 체육정책, 사회자본, 사회연결망

이 광 렬(Kwang-Lyeol Lee) 정회원



- 1990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93년 2월 : 호남대학교 경영학과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07년 8월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경호안전학 박사)

▪ 1981년 9월 ~ 현재 : 국방부 육군 중령

<관심분야> : 시큐리티정책, 민간경비, 생물테러리즘 대응, 조직 인사관리

김 평 수(Pyung-Su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경호학사)
- 2002년 2월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경호학석사)
- 2006년 2월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경호안전학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전남도립대학 경찰행정 경호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 경호조직과 경영, 생활안전, 경호정책

김 찬 선(Chan-Sun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교육학사)
- 2003년 7월 : 순천향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교육학석사)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경호안전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신성대학 경호무도학과 강사

<관심분야> : 여가 및 경호정책, 현대 생활과 안전, 경호무도, 민간경비